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5.07.(제 6호)

## 미래역량에 주목하는 아동돌봄의 과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관련 분야 협력 사업 현황]

아동 돌봄정책 아젠다 발굴 및 미래역량 도출('25.1~7.)

아동돌봄 창의융합 콘텐츠 개발(~'25.12.)

창의융합 돌봄콘텐츠 큐레이션 가이드 개발('25.4~'12.)

돌봄콘텐츠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25.12.)

#### [관련 분야 협력 연구 현황]

AI시대, 아동기 사회정서역량 발달의 쟁점과 대응 방안(근간)

서울시 어린이 행복도 제고를 위한 아동 양육자 정책 수요 조사(2023)

(수탁)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아동영향평가(2023)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AX시대(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의 도래는 사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인간 삶의 양식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에게도 감정조절력, 공감력, 도덕성과 같은 정서·사회적 능력뿐 아니라, AI 협업력, 디지털 감수성, 문제해결력 등 복합적·통합적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역량은 일상 속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며, 가정·학교·지역사회·돌봄기관 등 다양한 환경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길러진다. 이는 OECD, EU, UNICEF 등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변혁적 역량', 삶의 기술로서 강조되는 정서조절과 사회정서적 기술 등의 글로벌 담론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역량 간의 상호작용과 전인적 성장의 기반으로 돌봄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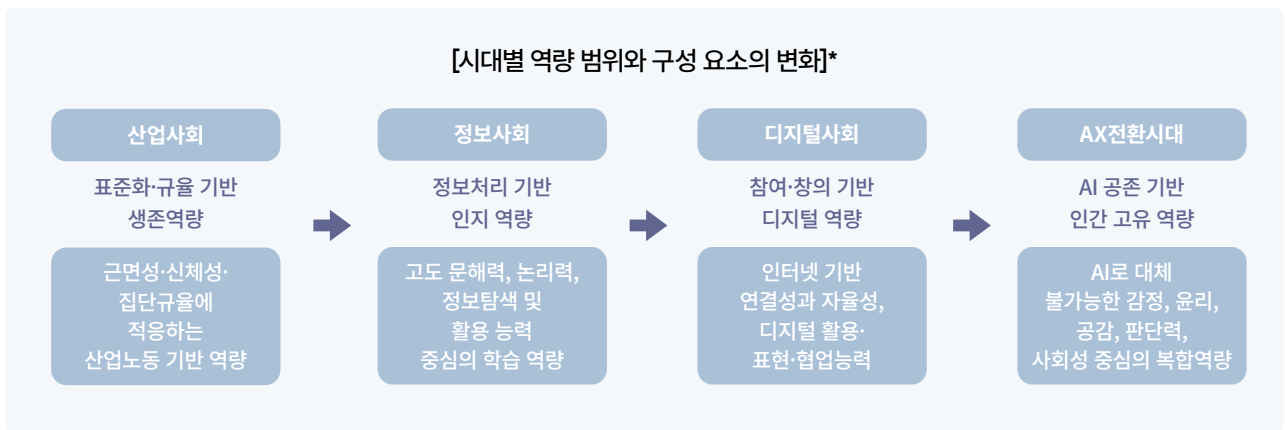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국내 실증 연구 결과와도 맞물린다. 한국아동패널(PSKC)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돌봄기관 이용 경험은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 역량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 경험은 사회정서 중심 역량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다시 인지역량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된다. 특히 돌봄 이용 경험 수준에 따라, 정서역량이 인지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돌봄 콘텐츠가 아동의 역량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아동 공적돌봄이 보호 중심의 돌봄에서 나아가, 아동의 미래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정서·사회적 역량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적돌봄은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역량 형성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돌봄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는가에 있으며, 그 경험의 질과 지속성을 중심에 둔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AX전환 시대와 아동 역량 요구 변화

### ○ 아동 역량의 시대적 변화 흐름

- 역량(competency)은 시대별 사회경제 구조와 기술 환경의 요구하는 적응성에 따라 내용과 형성 방식이 변화하는 사회적·맥락적 개념으로(Rychen & Salganik, 2003; OECD, 2005) 특정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 구조임
- 특히 아동기 역량 형성 경로는 교육·복지정책과 긴밀히 연동되어 규정함(Kagan, 1991; Levy & Murnane, 2004). 생존 기술로도 볼 수 있는 역량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생존 조건에 따라 그 범위와 구성 요소가 변화해 옴
- 대량생산과 집단 규율 중심의 사회 질서에 따라 산업사회는 순응과 근면율, 정보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보화를 통해 인지 역량 강화에 주력한 정보사회에서는 논리력·정보 처리력·활용력을, 디지털사회는 디지털 네트워크, 모바일 기술,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일상과 학습 전반을 재구성하면서 창의성·디지털 활용력을 강조해 옴



\*Daniel Bell(1973), Alvin Toffler(1980), Manuel Castells(1996)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생성형 AI와 자율형 시스템이 사회 운영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예측 기반 사회로 전환은 아동에게 감정조절력, 공감과 윤리성 같은 인간 고유의 사회정서적 역량뿐 아니라, 디지털리터러시, 시각적·심미적 표현력, 미디어 비판 능력, 고도화된 문해력과 같은 AI와의 협업 및 해석 기반 확장 역량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이 일상화된 맥락에서, 판단력·창의성·윤리성·해석력이 통합된 새로운 역량 구조의 정립 필요성을 시사함

### ○ AX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역량

- AI 시대에도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남는 정서·사회·인지 역량을 포함하며, 기존의 정보사회에서 요구된 디지털 역량은 AI 역량으로 확장됨. 이러한 미래역량은 미래 사회에서 개인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적인 자질로 정의됨(OECD, 2018; EU, 2019; World Economic Forum, 2020)

표 1 | 미래역량의 특성

구분	OECD Learning Compass 2030	EU Key Competences Framework(2018)	UNICEF(2012) · WEF(2016; 2020)	영역별 시사점
미래 역량 개념	개인·타인·지구의 웰빙을 위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사회통합·시민성을 위한 평생학습 핵심역량 체계	삶을 위한 기술(Life Skills)	➔ 전인적 삶과 사회참여를 위한 복합적 역량으로 재정의 필요
핵심 구조	자기주도성, 공동책임, 예측-행동-성찰 주기	문해력, 디지털역량, 사회·시민역량, 문화 간 이해 등 8대 역량	감정조절, 도덕판단, 책임감, 사회정서 기술 등	➔ 자기조절-공감 -디지털시민성 등 통합형 프레임 필요
강조점	지속가능성, 복합문제 대응, 역량 간 상호작용	디지털 시민성, 문화 다양성, 수용력, 문화 간 이해, 협력	도덕성·정서 안정·공감 능력 등 인간 고유성 중시	➔ 비인지역량 + 디지털 감수성의 균형 중요
역량 형성 방식	예측-행동-성찰의 학습 순환 구조	실천적 학습과 문화적 소통, 사회참여 기반	감정적·사회적 피드백과 관계 중심 학습, 사회경험 중심	➔ 교과 외 비형식 학습 (돌봄, 놀이, 관계) 제도화 필요
	↓	↓	↓	
주체별 시사점	전환기 대응을 위한 능동적 학습자 모델 제시. 사회·기술 변화 적응 능력 중시	시민성·문화이해 중심 역량은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성 높음	비인지역량의 조기 형성 필요성 강조. 돌봄·관계 중심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됨	
	학습 순환 구조	사회통합/시민성, 시민역량	정서 중심 삶의 기술	
공통점	'지식'에서 '전인적 역량' 중심으로 전환, 정서·사회성·디지털 감수성 통합적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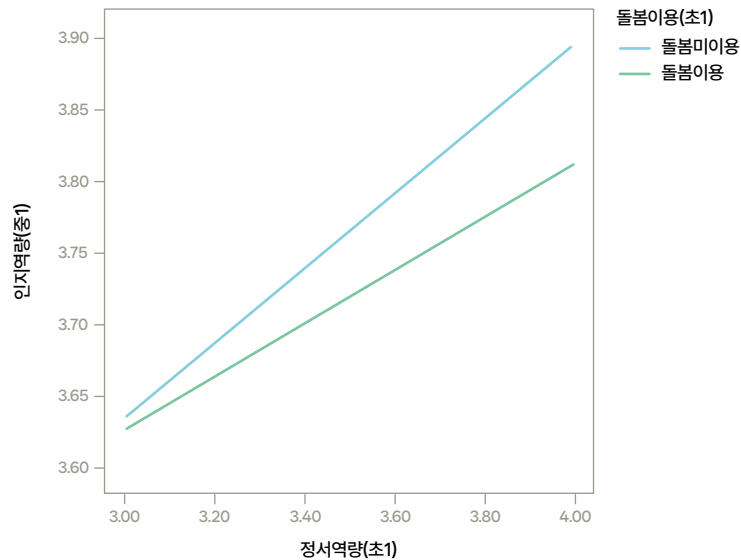
- AI 기술의 고도화, 기후 위기, 사회 양극화,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등으로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환경이 급격하게 재편됨. 사회는 더 이상 고정된 지식이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역량을 요구하게 됨. 특히 비인지 역량은 교과 중심 교육뿐 아니라 일상적·맥락적 학습 환경에서 점진적·반복적으로 내면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동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지식 습득'에서 '상황 감응적 대응력' 중심으로 이동됨. 상황 감응적 대응력이란, 정답이 없는 환경에서 맥락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단순한 학업 성취보다 인지·정서·사회적 기능의 통합적 활용을 요구하는 복합적 역량임. 기존 문해력, 정보처리 능력에서 AI 리터러시, 창의적 문제 해결력, AI 협업 능력, 데이터 기반 사고력 등 요구되는 역량의 전환은 국제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자기조절력, 공감력, 협업능력 등 비인지적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미래역량 간의 상호 관계와 장기적 영향, 미래역량 형성에 양질의 돌봄 경험이 미치는 효과성

- Heckman & Kautz(2012): 비인지역량은 학업성취보다도 장기적 임금, 고용안정성, 건강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침. 자기조절력, 성실성, 협업성은 사회이동성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짐. 비인지역량이 인지역량보다 고용, 수입, 건강 등에 장기적 영향력이 큼
- PISA(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2018): 사회정서역량과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정(+)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교폭력 경험 감소,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관련됨(Kuhn et al. 2021)

## 미래역량에 주목하는 아동돌봄의 과제

- 미래역량 간 관계 중단분석 결과(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5세, 8세, 15세에 측정된 자기조절력·공감·자존감 등의 사회정서역량은 2~3년 후 학업성취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사회정서역량은 정서 조절, 공감, 대인관계, 또래어울림 등으로 포괄하는 비인지 역량의 핵심 축이며, 인지역량(국어이해, 학습집중), 시민성, 행복감, 진로설계 등에 선행적으로 작용하는 기반역량임. 사회정서역량이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다양한 발달성과가 우수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8세 정서역량이 15세 인지역량에 미치는 영향  
: 8세 돌봄기관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PROCESS MACRO Model1)

| 표 2 | 정서역량과 돌봄이용에 따른 인지역량 예측효과 분석 결과

예측관계	회귀계수(B값)
8세정서역량→15세인지역량	0.254***
8세돌봄이용경험(조절변인)	0.268**
8세정서역량*8세돌봄이용경험	-0.092**

8세 정서역량(emo8)은 15세 인지역량(cog15)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 $B=0.2539$ ,  $p < .001$ ). 8세 돌봄이용 경험(care8) 역시 독립적으로 인지역량에 긍정적임( $B=0.2680$ ,  $p=.0099$ ). 그러나 상호작용항( $emo8 \times care8$ )은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여, 돌봄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역량이 인지역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정도는 감소함( $B=-0.0924$ ,  $p=.0050$ ). 즉, 돌봄경험이 정서역량→인지역량의 긍정적 연결고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정서역량별 맞춤형 돌봄이 필요함. 정서역량이 높은 아동 대상의 도전적·자율적 활동, 정서역량이 낮은 아동 대상의 관계중심, 감정표현·안정 기반 활동 등 개별 발달 특성 고려한 돌봄전환 설계가 필요함

⇒ 사회정서역량은 인지력, 행복감, 시민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발달 성과의 선행 변수로서 기반역량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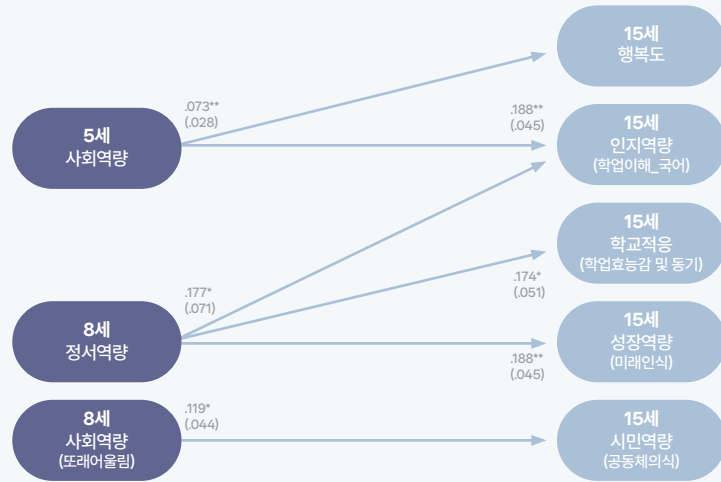


그림 2 | 영유아기 정서·사회 역량이 15세 시민역량, 성장역량, 학교적응,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도식 (중단 회귀분석(시점 간 예측모형))

- 5세 사회역량은 15세 인지역량과 행복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8세 정서역량은 15세 인지역량, 학교적응, 성장역량 등 다양한 발달영역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핵심 요인 가능성 있음
- 8세 사회역량(또래어울림)은 시민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장기적으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함
  - ▶ 영유아기 역량은 상이한 발달 영역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며, 정서·사회 기반역량은 장기적인 삶의 질과 학업 역량에 구조적으로 기여함
- 5세 사회역량은 15세 인지역량과 행복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8세 정서역량은 15세 인지역량, 학교적응, 성장역량 등 다양한 발달영역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핵심 요인 가능성 있음
- 8세 사회역량(또래어울림)은 시민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장기적으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함
  - ▶ 영유아기 역량은 상이한 발달 영역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며, 정서·사회 기반역량은 장기적인 삶의 질과 학업 역량에 구조적으로 기여함

⇒ 돌봄은 단순 보호가 아닌, 사회정서역량을 형성하는 사회적 학습의 장이어야 함. 양질의 상호작용, 감정 공유, 또래 놀이 중심의 기획된 돌봄 제공이 필요함. 이는 정서·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 맞춤 설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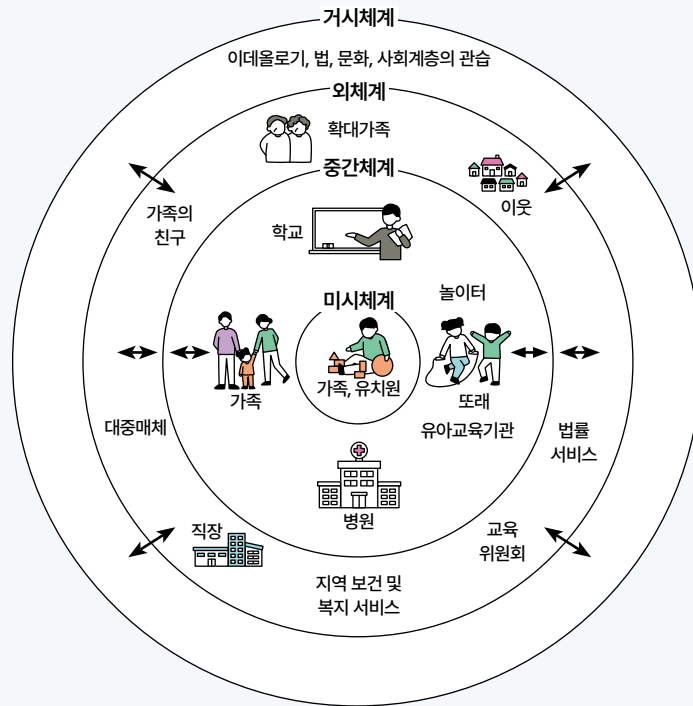
## AX시대와 아동 역량 요구 변화

### ○ AI사회 적응력 강화

- 미래역량 형성은 단일 기관에서 이뤄지지 않으며, 아동의 일상엔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맥락을 통해 구성됨. 학교는 이미 정서표현, 협업, 자율탐색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변화하고 있음(김주아 외, 2024). 학교만으로 아동의 전인적 역량을 충분히 형성하기 어렵고, 학교 밖 환경과 연계가 필요함
  - 아동의 삶 전체를 둘러싼 통합 생태계 관점에서, 돌봄의 교육적 의미를 재정립해야 함
- 돌봄기관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며 미래역량은 학교 교육만의 영역이 아니기에 학교밖 환경, 특히 돌봄 정책이 이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함
-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아동 발달은 다양한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짐. 돌봄기관은 중간환경(mesosystem)으로서,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며 아동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정서적 피드백의 장을 구성함
  - 미래역량은 관계, 피드백, 선택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돌봄은 중요한 역량 형성 공간임. 특히 미시체계(가정과 돌봄기관)와 중간체계(기관과 가정 간의 연계)의 연계 구조는 미래역량 발달의 핵심 환경임

## 미래역량에 주목하는 아동돌봄의 과제

- 역량 중심의 콘텐츠 개발,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연계, 단순 보호나 돌봄에서 벗어나, 미래역량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정서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자기조절 기회 제공, 또래 및 성인과의 협업 경험 축적, 표현·탐색·실패·회복의 반복 가능 구조 설계임



[그림 3] 생태체계이론과 역량 구성 환경

- Vygotsky와 Bronfenbrenner의 이론에 따르면, 역량은 교육 내용 그 자체보다도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의 관계, 선택, 피드백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발달함
- 이러한 점에서 돌봄은 아동 일상에서 가장 빈번히 작동하는 역량 형성의 핵심 환경이며, 감정조절, 자기표현, 또래관계 등이 축적되는 구조적 장임
- 특히 돌봄기관은 생태체계 이론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질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환경으로서, 아동의 역량 발달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 미래역량의 사회경제적 격차 최소화

- 사회경제적 격차는 역량 형성의 출발선부터 차이를 만드는데 이는 사회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화시킴. 즉, 아동의 발달은 개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긴밀히 연결된 생태적 현상임
- 가구소득이 낮은 아동은 정서조절, 협동심, 또래관계, 행복감 등 사회정서역량 전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러한 격차는 언어 능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남(정익중 외, 2022; 최은영 외, 2022; OECD, 2021)
- 가정환경 등 문화자본 및 심리사회적 자원의 차이는 아동 초기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격차는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고착됨. 이러한 현실은 돌봄정책이 단순한 보원책이 아닌, 사회구조적 격차를 완화하는 공공개입의 핵심 전략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함. 돌봄은 아동 개인을 둘러싼 생태계를 재설계하는 사회정책적 도구이며, 이를 통해 가정-기관-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량형성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공적돌봄의 효과성

- 돌봄 이용 경험과 역량 형성 중단분석(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공적돌봄 경험은 아동의 사회정서·인지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용 여부보다 '경험의 질'이 핵심 변수로 나타남
- 사회역량: 5세 공적돌봄 경험이 또래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결과  
초등학교 1학년 시점(8세)의 사회역량(또래 어울림) 수준은 공적돌봄 이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임(F=4.774, p=.009). 특히, 5세 시점에서 공적돌봄에 참여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사회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6), 이는 초기 돌봄 참여 경험이 또래와의 상호작용 능력, 협력성, 사회적 민감성 등 사회적 기초역량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공적돌봄 경험의 질적 요인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조기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 | 5세 공적돌봄콘텐츠 참여 여부에 따른 8세 사회역량 차이

그룹	8세 사회역량(어울림)평균	공적돌봄 미이용 집단과의 사회역량 차이
1)공적돌봄 이용(5세·8세)	1.451	+0.190
2)공적돌봄 미이용(5세·8세)	1.261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5차, 8차, 15차 데이터 연구진 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단일시점으로 반복측정 구조 미고려

- 인지역량: 돌봄의 누적 경험과 중등기 학업 이해력의 관계 분석결과<sup>1)</sup>  
중학교 2학년(15세) 시점의 인지역량(국어 기반의 이해 및 수행력) 역시, 공적돌봄 이용 그룹 간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5세와 8세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적돌봄을 이용한 집단(group 1)은 타 그룹 대비 의미 있게 높은 인지역량 수준을 보임(p=.002, η<sup>2</sup>=.026). 이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공적돌봄 참여 경험이, 청소년기의 학업 수행 역량, 특히 언어 기반의 이해력과 실행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함. 이 결과는 돌봄의 양뿐 아니라 '지속성'이 미래역량 형성의 질적 변화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시사함

표 4 | 공적돌봄 이용에 따른 15세 인지역량 평균 차이

그룹	이해(국어)	수행력(국어)	증가량(변화폭)
1)공적돌봄 누적 이용	4.350	4.410	Group1(누적이용)**이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p = .002)
2)공적돌봄 5세만 이용	4.150	4.100	
3)공적돌봄 8세만 이용	4.050	4.089	
4)공적돌봄 미이용	4.000	3.950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5차, 8차, 15차 데이터 연구진 분석

group1)누적이용, group2)5세만이용, group3)8세만이용, group4)들다미이용

⇒ 아동의 미래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돌봄기관 이용 여부를 넘어, 돌봄기관 내에서 아동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경험의 질' 중심의 전환이 필수적임. 분석 결과, 돌봄 기관 내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참여와 콘텐츠 경험은 정서, 인지, 사회적 역량 등 핵심 발달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돌봄기관의 콘텐츠 구성과 활동 질이 아동의 역량 형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함

표 5 | 공적돌봄 이용이 역량에 미치는 영향

시점	참여 콘텐츠	역량에 미치는 영향	비고
5세	돌봄 특화활동 참여	정서역량, 인지역량 ↑	단순 돌봄 이용 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음
8세	돌봄 참여도	사회역량 ↑	참여 수준이 핵심 변수
15세	공적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서역량, 인지역량, 학교적응 ↑	양적 수혜보다 '내용의 질'이 중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5차, 8차, 15차 데이터 연구진 분석

1) 다변량 일반선형모형(MANOVA) 분석을 통해 도출됨

- OECD는 고품질 초기 돌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의 핵심 요소로 단순 보육이나 시간제 보호가 아닌, 의도된 교육 콘텐츠와 아동 주도적 활동이 포함된 환경을 제시함. 이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경험 중심의 돌봄 참여가 아동 발달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현재의 서울 아동돌봄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함
- 돌봄기관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아동의 발달 경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며 돌봄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질과 아동의 경험은 미래역량에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교사의 중재 능력과 아동 주도성이 보장된 환경은 사회정서적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이는 다시 인지적·시민적 역량으로 확장됨. 돌봄의 단위는 시간이 아니라 '경험의 질'이어야 하며, 프로그램 설계 시 빈도·내용·상호작용·환경 특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기존에도 일부 제공되어 온 서비스들이 미래역량 중심의 콘텐츠로 체계화 된다면 아동 미래역량 형성에 효과적일 수 있음

### 아동돌봄, 미래역량에 주목하다!

#### ○ 촘촘한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의 돌봄 콘텐츠 질적 전환 전략 추진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형 어린이집' 등은 ▲아동의 활동 몰입도 향상, ▲사회정서 콘텐츠 확대, ▲자율적 선택 보장, ▲감정 언어화, ▲또래 협업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돌봄 환경을 제공함. 특히 사회정서 중심 활동, 협업 프로젝트, 감정 표현 활동 등이 정착되면서, 돌봄 공간이 미래역량 형성의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음
-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2019년 97개소에서 2024년 256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초저출생 국면에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 시간·공간의 확장, ▲다주체 참여 기반 강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둠. 이러한 양적 기반 위에,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 역량 성장 콘텐츠 설계가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돌봄정책의 전략적 전환

- 돌봄정책은 '보호 중심'에서 '역량 형성 기반'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이 핵심임
  - 첫째, 정책비전 전환이 요구됨. 돌봄을 단순한 돌봄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의 미래역량을 기르는 '역량 형성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함
  - 둘째, 콘텐츠의 구조화가 필요함. 자기조절, 공감, 창의성, 시민성 등 핵심 미래역량이 실제로 경험되는 활동과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다중주체 실행 기반을 구축해야 함. 교사, 부모, 지역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연계하는 협력적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 대상 사회정서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 개발, △부모 참여형 콘텐츠 기획, △기관 간 공동운영 및 콘텐츠 연계 체계 구축 등의 실행 기반이 체계화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아동의 미래역량이 자라나는 돌봄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공간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공간을 넘어, 아동-교사-부모-지역이 함께 학습하고 협력하는 구조적 설계로 재편되어야 함. 돌봄정책은 일상의 학습장이자 협력적 성장의 생태계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공공 역량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할 것임

작성자: 송이은 / 돌봄사업실 미래돌봄기획팀

## 참고문헌

- 김주아, 김지혜, 이승호, 정미경, 길혜지, 강충서, 전경희, 김지은, 이셋별. 2024.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평가 패러다임 전환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익중·이수진·정수정·유다영. 2022.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일상균형과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행복감 비교. 보건사회연구 42(1):299-315.
- 최은영·김은영·구자연·조혜주·정윤경·심영규. 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
-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Vol. 1). Blackwell.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8. Council Recommendation on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2018/C 189/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189, 1-13.
- Heckman, J. J., & Kautz, T. 2012. Hard evidence on soft skills. Labour Economics, 19(4), 451-464.
- European Commission. 2019.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Learning Compass 2030 – A series of concept notes. OECD Publishing.
-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mak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9).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project.
- Kagan, J. (1991). The nature of the child (2nd ed.). Basic Books.
- Kuhn, L., Bradshaw, S., Donkin, A., Fletcher, L., Liht, J., & Wheater, R.. 2021. PISA 2018 additional analyses: What does PISA tell us about the wellbeing of 15-year-olds?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Levy, F., & Murnane, R. J. 2004. The new division of labor: How computers are creating the next job mark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chen, D. S., & Salganik, L. H. (Eds.).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 Huber.
- Toffler, A. 1980.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Fund). 2012. Global evaluation of life skills education programmes: Final report. UNICEF.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 World Economic Forum. (2016, January 1).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 World Economic Forum. (2016, March 10). New Vision for Education: Foster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rough Technology.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 World Economic Forum. (2020).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World Economic Forum.